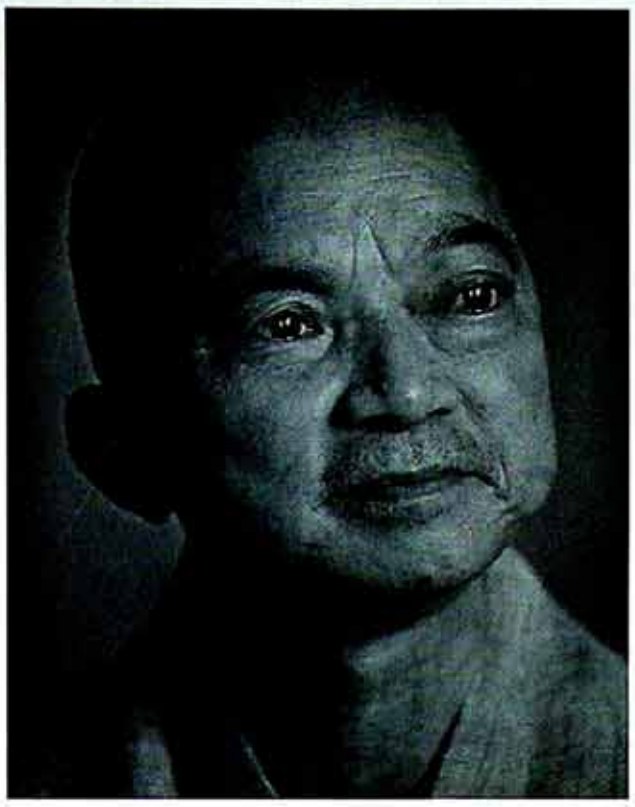

조계산의 얼굴 지허스님

六祖혜명 잇는 綠茶의 고수

선암사에는 사천왕상이 없다. 조계산의 주봉인 장군봉(884m)이 대신하기 때문이다. 대웅전에 주련도 없다. 6조(六祖)의 혜명을 잇는 선(禪) 도량인즉, 말을 아낄 따름이다.

이런 가풍을 이어가는 선암사 침전선원의 선원장 지허 스님. 스님에게서는 녹차 향기가 난다. 선암사의 녹차가 이름 높고, 당신이 손수 그 차를 만들어서가 아니다. 객들에게 차맛을 넉넉히 보이면서도 차의 품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고수의 경지만 그럴 수 있다.

1956년에 선암사로 출가하여 오늘에 이른다.

古梅암향의 태고총림 철철이 새모습

◇옛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전각과 늙은 매화나무의 조화가 선경을 이루는 태고총림 선암사.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도량에 꽃이 지지 않을 정도로 수목이 다채롭다. 이에 더하여 조계산의 주봉인 장군봉이 가람의 신장이 되니 위엄 또한 드높다.

조계산 선암사

산빛 그대로 노래가 되고 시(詩)가 되는 계절입니다. 그 경계를 함부로 입에 올림이 심히 주저되는 바, 이렇게 고인의 뜻에 기대어 봅니다.

개울물 소리 다함없는 법문이요
산빛은 그대로 부처의 몸.
어젯밤 깨달은 이 무량한 가르침

그대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리.
溪聲便是廣長舌 山色豈非清淨身
夜來八萬四千偈 他日如何擧似人

66세에 불문에 귀의하여 동림 상총(東林常總, 1025~1091) 스님의 문하에서 도를 얻은 소동파(蘇東坡, 1036~1101)의 오도송입니다. 바늘 끝 들어갈 틈도 허용하지 않는 궁극의 언어 앞에서 무슨 번다한 얘기를 늘어놓겠습니까만, '진리란 언어를 떠난 자리에 있다'는 말이 함부로 운위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꼭 보태고 싶습니다. 궁극의 언어는 능히 말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봄을 즐김(玩春)에 매화를 바라봄(玩梅)만한 것이 없고, 매화의 아취(雅趣)는 늙은 매화(古梅)가 으뜸이라고 들었습니다. 매화의 고절한 아름다움이 풍상을 떠나 있지 않으니, 살아온 연륜의 깊이야말로 그 서늘한 아름다움의 몸통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고매(古梅)의 암향(暗香)을 떠올리자니,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발길은 저기 남도의 봄이 무르녹아 흐르는 선암사로 내닫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하늘은 우울했습니다. 누런 모랫바람은 코앞을 천리로 벌여놓았고, 봄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향기가 다칠새라 숨결도 낮추고, 책장 넘길 때 번져가는 섬세한 향기에 취할 줄 알았던 옛사람들의 격조야 감히 흉내들 낼 수 있겠습니까만, 마음의 어지럼증은 쉬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선암사의 봄은 의연했습니다. 도량 곳곳에 자리 잡은 60여 그루에 이르는 늙은 매화는 분분히 꽃비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어진 꽃잎을 보자니 꽌히 콧잔등이 시려와 하늘로 고개 들어 눈

◇청빈이 오래입은 옷처럼 편안해 보이는 선암사. 6000여명의 차밭을 스님네들이 손수 일구고 차를 만들어서 절 살림을 꾸린다. 현재 선원과 강원의 학인을 포함한 60여 대중이 산다.

가의 물기를 말리고 나니, 진영당 돌담 곁에 핀 개나리꽃 천연덕스럽게도 노란 웃음을 날리고 있습니다. 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청량한 봄기운에 이끌려 절의 뒤뜰이나 다름없는 차밭으로 발길을 옮겨 봅니다. 연둣빛 새순이 꽃처럼 아름다운 차밭 위로 헬 어지는 햇살이 유리구슬처럼 빛나는데, 껑충 솟은 산수유와 매화의 노랗고 하얀 대조가 극상림 구조의 활엽수가 원시의 푸르름으로 빛나고, 가을이면 색의 농도가 세겹으로 겹치는 조계산의 단풍도 일품입니다. 그리고 겨울, 잎 다 내려놓은 허허로운 산에 깊숙한 눈. 절로 안심(安心)의 터가 됩니다. 이런 자연을 배경으로 자리 잡은 절집이니 어찌 고격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역설적이게도 선암사의 옛스러움에는 한국 불교 근대사의 슬픔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1954년 5월 이승만 대통령의 불교 유시로 비롯된 조계종과 태고종 간의 분규의 소용돌이 속에서 선암사는 섬처럼 고립됩니다. 그 결과 실제로는 태고종의 총림이지만 법적으로는 조계종의 절이고 관리는 순천시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기묘한 동거가 누구도 쉽게 절을 손대지 못하게 하는 구실을 했으니, 볼썽사나운 일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닌가 봅니다. 거기에 더하여 절 살림살이가 워낙 넉넉치 못하다 보니, 그냥 있는 대로 다듬어 쓰게 되자 빛바랜 단청은 퇴락이 아니라 생기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가난은 대단한 자랑입니다. 그러나 40여 동이 넘는 고풍의 전각 앞에 새로 세워진 성보박물관은 발을 구르고 싶을 정도로 보는 이를 안타깝게 합니다. 성보조차도 안전하게 제 자리를 지킬 수 없는 흉흉한 세태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가람 전체의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그 사려깊지 못함은 두고두고 보는 이의 가슴에 돌이 될 것 같습니다.

태고총림 선암사(仙巖寺). 옛절다움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는 절로 최고의 아낌을 그립처럼 아름답습니다. 그 너머로 보이는 겹겹이 쌓인 전각들의 뒷모습이 가히 신선들이 내려와 앉을 바위(仙巖) 같습니다.

선암사의 아름다움은 자연과 전각의 고풍이 조화를 이루는 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사철 다른 모습이어서 평생을 바라보아도 늘 새로울 것 같습니다. 봄에 매화꽃을 시작으로 끊임없이 꽃이 피고 지니 겨울을 앞두고는 하얀 차나무 꽃이 가을의 은은함에 격조를 더합니다. 여름에는

받는 곳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과 송광면에 걸친 조계산의 동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아도화상이 창건했다는 설과 신라 말기에 도선 국사가 창건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알길이 없습니다만, 도선의 창건설이 앞선 기록입니다. 절의 구전에 의하면 아도가 비로암(毘盧庵)에 터를 닦았고 나중에 도선이 크게 일으켰다 합니다.

오래된 전각 40여동 옛절 품격 넘쳐

꽃비 내리는 산문을 나서면서 혹 봄꿈에 취하여 너무 들뜨지 않았나 가슴을 쓸어 봅니다. 다시 소동파의 오도송으로 글을 닫습니다.

여산의 안개비와 절강의 물결이여
가 보지 못했을 땐 천만 가지 한이었네.
가 보니 그곳에도 별다른 것은 없고
여산의 안개비와 절강의 물결일 뿐이었네.

廬山煙雨浙江潮 未到千般恨不消
到得還來無別事 廬山煙雨浙江潮

글=윤제학 기자
사진=박보하(사진기자)

"다보탑이 연등되어 월드컵을 밝힙니다!"

2002 FIFA월드컵 공식 인정상품

세계적인 2002 한일 월드컵을 맞아 우리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문화재(국보 제20호 다보탑)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실제 원형의 미를 살려 심혈을 기울여 완성하였습니다. 이 소중한 문화재를 간직함으로써 우리가정의 평화와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큰 뜻이 있으며 또한 우리마음의 수련을 통하여 탑의 모양처럼 둥근 원의 세계를 지향하는 자기수행의 상징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품 사양과 품질] ■ 크기 : 230×230×360mm ■ 재료 : 동, 아연 주석의 합금 + 24K 순금도금 [순도 99%] ■ 소비자가격 : 220만원 [좌대, VAT 포함]

한 정 판 매

전 세계에 2002개 뿐 !!

변하지 않는 순금의 멋 ! 한국을 대표하는 2002 월드컵 최고의 명품 !
제품 하나하나 고유번호(1~2002)를 정밀조각하여 소장가치가 으뜸 !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아름다움에 누구나 매료됩니다 ! 소중한 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

이 제품은 인기품목이므로 단시일안에 품절 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접수량이 한정수량에 도달하면 접수가 마감됩니다.

주문전화 : 055)275-3612~3 FAX : 055)275-3627

2002 FIFA월드컵 금장 다보탑 판매 업체 모집
■ 대상지역 : 전국 ■ 모집대상 : 지역총판, 대리점 ■ 자격요건:유통업자 및 매장소유자
■ 문 의 : (주)국제스포츠 055)275-3612~3